



◇옥천 영국사 올라가는 길센의 적석탑.

증증이 쌓인 시비의 소리



<3>길센의 민속탑-적석탑

요즘 '사찰순례'나 '관광단'이니 해서 명찰(찰)에 명찰이 따로 있나가를 들면서 절을 해설(해)해 주는 선생님들을 보는데, 그것은 절에서 '생각하는 맛'이나, '절은 무념의 맛이 최상의 맛이지'와 '깨달음의 맛'을 팔팔히 가져 버리는 아주 맛없는 일 같아서 민망할 때가 많다.

절은 백암(백암)이다. 사바세계가 곧 다 화두인데, 거기서 깨닫지 못하는 화두를 절은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화두를 받기 위해 절은 간다고 할까? 적어도 나는 그렇다. 따라서 절은 해설할 수도, 해서도 안 되는 불립문자의 세계인

밀돌하나 놓고 소망하나 쌓고...

길옆 돌담 다보탑보다 더 예뻐

데, 왜 그렇게 '안경'을 씌워 화두의 짝을 짝 짝 질러버리는 걸까? 왜 그런 일에 열심(열심)들인지, 참 난감한 일이다.

나는 그 동안 많은 사람들과 여러 절을 다녀보았다. 그러면서 참으로 기이한 현상이 놀라곤 한다. 하나같이 모두 법당을 향해 마치 쇠불이(쇠불이)가 지남(지남)에 이끌려 가듯 부리나케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본주(본주)법당(법당)가서 팔 하려는 걸까? 불공(불공) 부처님께 돈(돈)을(돈)이나 놓고 소망을 여쭙는다? 좋지, 다 잘 살자고 하는 일(일)이니까. 그러나 절에서 할 일이 그것(그것)에 그친다면 곤란하다. 불상은 부처님의 궁극적 세계를 표상(표상)한 것이다. 절은 그 궁극적 세계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을 상징(상징)적으로 구성(구성)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무시(무시)해 버리고 불상 앞에 백 배(백 배)를 해 보았(해 보았)자, 아아 짧은 불라도 부처(부처)님은 들어(들어)오실 것이다. 왜냐하면 부처(부처)님께서 진(진)짜, 간절(간절)히 바라(바라)시는 게 돈(돈)은 아니(아니)니까. 돈(돈)은 그냥 마음(마음)을

떠보는 정표(정표)일 테(테)니까.

절에 가면, 내가 산사의 중(중)역(역)에 이(이)를 때(때)쯤이면, 나와 같이 갔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벌써 출가(출가)분(분)이(이) 내려(내려)오고 있다. 부처(부처)님께 눈(눈)도장(장) 찍(찍)었(었)으니까 더 풀(풀)일(일) 없다는 듯한 표정(표정)들이 정말(정말) 난(난) 회(회)한(한)다. 절(절)은 왜 나무(나무)가 있고, 풀(풀)이 있고, 산(산)이 있고, 물(물)이 있고, 풀(풀)이 있는(있는)가? 보(보)물(물)급(급) 불(불)상(상)만이 불(불)상(상)이고, 국(국)보(보)급(급) 문화(문화)재(재)만이 가치(가치)가 있는(있는)가? 그런 색안경(색안경) 쓴(쓴) 미(미)물(물)의 잣(잣)대(대)이(이)겠(이)지. 절(절)에는 풀(풀), 하(하)다(다)못(못)해(해) 돌(돌) 하나(하나)까지도 나(나)에게 새(새)로운 의미(의미)로 다가(다가)고 있고, 그것(그것)이 곧 화(화)두(두)인데, 나는 늘(늘)상(상) 놀(놀)라(라)고 있는(있는) 것이다.

절에 가면 나는 아주 사소한 것에 감동(감동)을 받(받)곤 한다. 절로 가는 길(길)을 절로 절로 따라(따라)가다 보면 길(길)센(센)에 울(울)망(망)종(종)망(망) 서(서) 있는 작은 돌(돌)담(담)의 행(행)렬(렬)! 길(길) 따라 나(나)를 따라 위(위)태(태)롭게, 때(때)론(론) 비(비)를(를) 거(거)리며, 길(길)센(센)에 몸(몸) 비(비)쳐(쳐) 숨(숨)죽(죽)이고, 그리고 간(간)절(절)하게 증(증)증이 쌓(쌓)인 작은 돌(돌)담(담)이 괜(괜)히 나(나)에게 희(희)가(가) 많(많)다. 다(다)보(보)탑(탑)보다 더 아(아)름(름)답(답)게, 그리고 귀(귀)하게 보(보)인다. 우리는 대(대)개(개) 선(선)별(별)된 세(세)계를 지(지)향(향)하며 산(산)다. 그것(그것)을 예(예)술(술)이라고 하여 숭(숭)앙(앙)한다. 불(불)교(교)예(예)술(술)이 장(장)엄(엄)하(하)기는 하나, 그 예(예)술(술) 자체(자체)에 매(매)달(달)리는 건(건) 걸(걸)만 보(보)고 사(사)는 것(것)이다. 그(그)런(런) 방(방)편(편)일(일) 뿐(뿐)이나(나), 밭(밭)을 하나(하나) 놓고, 소(소)망(망) 하나(하나) 쌓(쌓)고, 그(그) 위(위)에 돌(돌) 하나(하나) 더 얹(얹)고 부(부)처(처)님(님)께 받(받)고, 그(그)리고 또 돌(돌) 하나(하나) 얹(얹)고 부(부)처(처)님(님)께 받(받)고... 그(그)릴(릴) 때(때)마다 공(공)든(든) 탑(탑)이 무(무)너(너)지(지)라. 그(그)야(야)말(말)로, 대(대)웅(웅)전(전)의 금(금)불(불)상(상)은 감(감)히 엄(엄)두(두)도 못(못) 낸(낸) 채, 무(무)지(지)렁(렁)이 마음(마음) 속에 고(고)이 모(모)서 놓(놓)은 무(무)지(지)렁(렁)이 부(부)처(처)님(님)께 받(받)고 받(받)아 놓(놓)은 이 적(적)석(석)탑(탑)이(이)야(야)말로 중(중)생(생)의 아(아)픔(픔)이(이)요, 아(아)우(우)성(성)지는 사(사)바(바)의 소(소)리(리)가 아(아)닐(닐)까? 나는 그(그)것이 들(들)린(린)다. 그리고 그(그) 속에 내가 있(있)음을 깨(깨)닫(닫)는다. 아, 왜 부(부)처(처)님(님) 화(화)신(신)이 있(있)을까? 미(미)륜(륜)사(사)지(지) 석(석)탑(탑) 같(같)은 어(어)마(마)어(어)마(마)한(한) 탑(탑)을 쌓(쌓)는 조(조)탑(탑) 공(공)덕(덕)은 감(감)히 상(상)상(상)도 못(못)할, 어느 무(무)지(지)렁(렁)이(이)의 아(아)주(주) 하(하)릴(릴) 것(것) 없(없)는 이 작은 돌(돌)담(담) 속에 이 세(세)상을 구(구)할 부(부)처(처)님(님)은 연(연)화(화)장(장)의 세(세)계를 활(활)짝 여(여)실(실) 것(것) 아(아)닐(닐)까? 탑(탑)만(만) 따(따)라(라), 공(공)들(들)여 받(받)은 받(받)은 다(다) 탑(탑)이다. 공(공)양(양)탑(탑)이 따(따)로 있(있)나?

적석탑은 무문(무문)의 문(문)이(이)요, 이(이)것이 곧 연(연)화(화)시(시)중(중)의 화(화)두(두)가 아(아)닐(닐)까? 불(불)탑(탑)이 불(불)교(교)양(양)식의 탑(탑)이라면, 적(적)석(석)탑(탑)은 우리(우리)네 일(일)이 절(절)에 남(남)은 민(민)속(속)의 원(원)형(형)이라(라). 전(전)성(성)<사(사)자(자)간(간)>

바로 잡습니다. 지난 회 사진설명 중 '우리보전'은 '용진전' 이기에 바로잡습니다.

현대불교 - 동국역경원 공동캠페인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해인사 장경보다 내용풍성

팔리어 장경 10 · 한국고승저술 20권 포함

한글대장경 구성 어떻게

동국역경원이 37년 만에 완성한 한글대장경 320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동국역경원은 원래 250권 정도의 한글대장경을 계획했다. 그러나 역경사업이 진행되면서 해인사 고려대장경을 번역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시대에 우리의 글로 새롭게 형성된 대장경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320권으로 그 수량이 늘어났다.

다. 초대 역경원장 윤허스님이 역경사업의 시작에 앞서 당시(1964년) 불교계 안팎의 지식인 100명에게 서신을 보내 이들에 대한 자문을 구했던 것. 당시 서신을 받은 대다수의 지식인들은 민족혼과 문화적 자긍심이 어린 우리 문자의 이름인 한글을 붙여서 한글대장경이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한글대장경의 중요한 골격을 이루는 고려대장경은 스승의 경(經) 율(律) 론(論)과 대승의 경(經)론(論) 및 현성집정(賢聖集證)·불교의 존경받는 스승들이 남긴 문집의 총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글대장경은 우리의 글로 새롭게 탄생한 문화유산이다. 고려대장경 전체를 번역하고 팔리어장경과 신라에서 근세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저술들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해인사 고려대장경은 현존하는 다양한 대장경 가운데 가장 정확한 내용과 정교한 판각 솜씨로 세계적인 공인을 받고 있다. 한글대장경 320권 가운데 290권이 바로 해인사 고려대장경 정장을 번역한 것이다. 거기에 팔리어장경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유익하고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경전들을 가려 번역한 10권이 포함되었다. 또 고려대장경에는 포함되지 않은 한국 고승의 저술도 번역됐다. 원효스님의 <대승기신론소법기> 보우스님의 <나암잡지>를 비롯 <초의집> <보조국사집> <원각국사집> 등 20여권이 한국찬술문집이다.

따라서 한글대장경은 고려대장경의 내용은 물론 그 정신을 고스란히 계승하면서도 고려대장경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불전들을 추가함으로써 한글대장경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서의 문화유산인 것이다.

한글대장경이란 이름은 특정한 인이 붙인 것이 아니

경(經)은 삼장(三藏)이라고도 표현되는데 이는 세 개의 공주(공주)라는 뜻이다. 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술한 문장 전부를 말하고, 율은 불교도들이 지켜야 할 계율과 교단의 규범 등을 정리한 문장, 론은 후세의 수행자나 학자 등이 경 또는 율을 해석하거나 논술한 것을 총칭하는 것이다. 이 경(經)을 삼장(三藏)이라 하지만 이 삼장이 합쳐진 문서를 총칭할 경우 대장경이라 한다. 따라서 대장경은 시대나 내용 분량 등에 국한되어 규격화 될 수 없다.

팔리어장경이나 티베트대장경 한역대장경들이 유구한 역사를 거치면서 꾸준히 변모해 온 것도 경전과 율전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진행되고 그 결과 문들이 논장을 형성해 오기 때문이다. 또 시대와 지역에 따라 불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각도도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대장경은 하나의 생명체로 우리의 곁에 살아 있는 것이다.



현대불교신문사와 동국역경원은 이 캠페인에 불자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캠페인 및 대장경 봉안 봉사, 역경 후원회 가입 등과 관련한 문의도 항상 받고 있다. 장경각보급 및 캠페인 관련 문의 (02)722-4162, 역경후원회 문의 (02)260-3893, 역경후원금 온라인 납입 078-02-079975 예금주 강계술(석주스님).

도솔암 삼사순례 및 방생법회 안내

한곳에서 방생도하고 삼사참배도 하시기 바랍니다

<삼사 참배 코스>

- 제 1 코스 : 도솔암 참당선원 선운사
- 제 2 코스 : 도솔암 선운사 내소사
- 제 3 코스 : 도솔암 선운사 개암사
- 제 4 코스 : 도솔암 선운사 내장사

- ※문화기행 : 고인돌, 미당 생가, 전통문 생가
- ※선운사의 투백(투백)은 4월 초순경 부터 민개합니다.
 - 도솔암에는 성지순례 참배객을 위해 항상 무료공양을 하고 있습니다.
 - 도솔암에는 대형버스가 절입구까지 올라갑니다.
 - 도솔암에는 계곡을 막은 5만평의 저수지 방생장소가 생겼습니다.
 - 하루전에 전화예약주시면 1000명분의 공양도 준비하여 드리겠습니다.

- 문의: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618번지 도솔암
- 전화 (063)564-2861, 561-0075 팩스 (063)561-4080

해동 제일 지장기도 성지 도솔암

